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혜택 2배

전주 치명자성지에 '세계평화의 전당' 개관

전주시, 내달 30일까지 적립 포인트 1권 당 50→100포인트·지급한도 5→10만원 상향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의 혜택이 2배로 늘어난다.

전주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의 적립 포인트를 1권 당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늘리고, 월 5만 원까지였던 포인트 지급 한도를 10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거나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포인트를 지급해 도서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8월 도입했다. 시는 도입 60일 만에 가입자가 4250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

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벤트를 통해 가입자들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벤트로 12곳의 전주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면 1권당 50포인트를 적립해주던 것이 100포인트로 확대 지급된다. 포인트 지급한도 또한 월 5만 포인트였던 것이 10만 포인트까지 늘어났다. 적립받은 포인트의 경우 32곳의 지역서점에서 정가의 20%를 할인받으면서 책을 구매하는 것에 추가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6일까지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책콩20'을 2배로 늘리는 홍보 이미지를 개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뒤 전주시 공식 SNS에 댓글로 참여 인증

을 하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은 시행한 지 60일 만에 시민들은 총 177만6828원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혜택을 누렸으며, 이 기간 지역서점의 도서 매출도 887만4140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가입은 전주시립도서관 회원증을 발급 받은 뒤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에서 하면 된다. 32곳의 참여서점 목록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책의도시정책과 책문화사업팀(063-230-181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 대성동 치명자성지에 '세계평화의 전당' 개관

전주 대성동 치명자성지에 천주교 순교자의 정신을 계승하는 세계평화의 전당이 건립됐다. 올 연말에는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까지 건립될 예정이어서 전주시가 종교관광의 성지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지난 16일 대성동 치명자성지에서 '제상을 향해 열린 사랑의 방주, 열린 공간으로의 선인'이라는 주제로 세계평화의 전당 개관식을 가졌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선태 전주교구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개관식은 개관축복미사, 교황 축복장 전달, 축하연 등으로 진행됐다.

세계평화의 전당은 3만9053㎡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9359.31㎡ 규모로 건립됐다. 전시장인 보두네홀과 4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컨벤션홀, 행사 및 공연 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2인실·가족실 등 76개의 객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춰 교육과 연구,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인근 한옥마을과 연계해 천주교 순례객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대중 문화관광지가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교의 경우 올해 안에 만성동 서교사 주변에 세계평화명상센터가 조성된다. 명상과 순례의 기능을 구비할 예정인 세계평화명상센터에는 명상생활체험관, 교육복합관, 목

조명상체험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기독교의 경우도 연내에 전주예수병원 인근에 근대역사기념관이 들어선다. 개화기 선교현장과 근대역사 발원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통해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복카페, 전시실, 의학박물관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들 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종교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인근 한옥마을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글로벌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동물원·덕진공원·남부시장 '열린 관광지' 선정

전주시, 공모사업 선정 국비 7억5000만원 확보...내년까지 3곳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추진

전주동물원과 덕진공원, 전주남부시장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 취약계층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로 변모하게 됐다.

전주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2년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서 전주동물원과 덕진공원, 전주남부시장이 선정돼 국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열린 관광지 조성은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의 제약이 없는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 7월 30일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과정에서 전북도와 적극 협업체 국비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해 사업 선정에 이뤄졌다.

시는 내년까지 국비 7억5000만 원 등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전주동물원과 덕진공원, 전주남부시장 등 3개소에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동물원의 경우 경사가 심한 호랑이사 등에 완만한 경사가 설치되며, 음성(촉지) 안내판 및 수화



새로 단장한 덕진공원 연화교의 모습.

영상 안내시설도 생긴다.

덕진공원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고, 주차장 입구 인도가 정비된다.

또 남부시장 장애인 화장실 공간이 확대되고, 주차장 이용환경도 개선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에도 이 같은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서

경기전, 향교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이 선정돼 총 12억8000만 원을 들여 화장실 개선,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등을 추진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보드미 위원 역량강화 교육

전주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지원에 힘쓰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소통·상당 역량을 강화한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승수·배진희)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민간 복지기관과 동 주민센터 담당자 등 희망보드미 위원 138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과 적응을 주제로 열리는 교육은 △코로나블루 증상 건강감 이해와 상담기법 △비대면 소통스킬 △조직 갈등 및 소통 관리 △원에심리상담 치유법 등으로 진행된다.

배진희 공동위원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시점에서 취약계층을 위



한 두터운 복지와 생활방역의 조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35개 동 9개 권역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희망보드미는 매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난이도 복합사례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아동극 공연으로 아이들 눈높이 맞춘 탄소중립 교육 진행

전주시는 지난 15일 전주자연생태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아동극 공연을 실시하고, 아동들의 탄소중립 실천 선언을 진행했다.

이번 아동극 공연은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 형성을 돕고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어린이들은 동화나래연구소가 꾸민 탄소중립 아동극을 관람한 뒤 △사용하지 않는 전기 끄기 △엘리베이터 층마다 누르지 않기 △1회용 컵 대신 개인 컵 사용하기 △물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물 절약하기 △텔레비전, 컴퓨터 사용 줄이기 △비닐



사용 줄이고 장비구 사용하기 등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탄소중립 시민강사를

양성하고 실천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군산도시가스주식회사
Kunsan City Gas Corporation

세만금과 함께 성장하는 군산도시가스

축! 전주매일 창간

매월 4일은 우리집 가스시설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EOCS(Excavation One-Call System)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
(www.eocs.or.kr)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굴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Tel : 1644 - 0001

급기구·환기구 개방

배기통 불량시 교체

보일러실문 닫고 사용

동절기엔 전원연결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시공자는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2013년 8월부터 안전점검 SMS 사전 안내서비스(수용가의 안전점검 월을 고객의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로 사전에 안내)를 시작하였습니다.
- ◆ 안내를 희망하시는 고객은 홈페이지 '고객마당 - 안전점검SMS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안전점검 SMS 사전안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장미동)

대표전화 : ☎440-7700

고객님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19년 5월 23일부터 ARS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